

III. 탐방 - 아모텍(052710)

작년 보단 나은 올해

올해는 전년대비 늘어나는
분기 이익에 발 맞춰
주가가 점진적 반등 기대

아모텍의 주요 제품은 전자부품(ESD/EMI: 정전기/전자파 방지), 안테나 부품, BLDC 모터 등이다. 주요 부품들은 대부분 IT(스마트폰, 가전)와 자동차 전장 산업을 동시에 전방산업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시장 부진으로 2017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가도 연초 대비 63.5% 하락하며 크게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자동차 전장 부문의 꾸준한 성장으로 다시 한번 이익이 늘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급격한 주가 반등은 쉽지 않지만, 올해는 매분기 전년대비 늘어나는 이익에 발맞춰 주가도 점진적인 반등이 기대된다.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었던 것으로 추정

2018년에는 스마트폰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연초 예상보다 주요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부진하면서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자부품(감전 소자, 바리스터 등), 안테나(NFC, 무선충전 등) 등 전사업부에 걸쳐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1분기 874억원이었던 전사 매출액이 3분기 564억원까지 줄었고, 4분기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부진 영향으로 전분기(매출액 564억원, 영업이익 18억원, 영업이익률 3.2%)와 큰 변함 없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개선요인 1. MLCC
신사업으로 매출액 300억원
발생할 것

올해 실적 개선의 첫번째 기대요인은 신사업인 MLCC다. 빠르면 1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는데 올해 약 300억원의 매출액 발생이 기대된다. 최근 범용 MLCC 업황이 peak 대비 다소 부진하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고수익성 제품인데다가, 이미 대부분의 고객사는 확보된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실적에 보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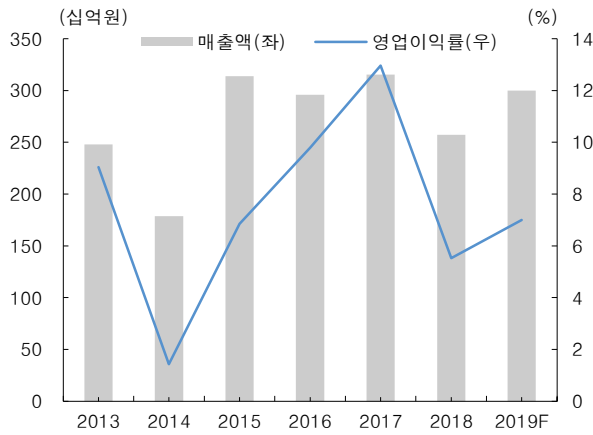
개선요인 2. 자동차 전장
매출액 지난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자동차 전장 관련 매출 비중도 꾸준히 커갈 것이다. 자동차 전장 매출액은 2017년 600억원에서 2018년 800억원, 올해는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2018년에는 모터와 전자부품 부문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안테나 사업부가 부진했다. 일부 유럽 고객사 관련 프로젝트에서 일회적인 진행 차질이 발생했지만 관련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다. 자동차 전장 매출액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늘고, 2021년부터는 매출액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다.

IT산업은 불확실성 존재,
상반기 국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기대감은 존재

IT는 스마트폰 업황 영향으로 전년대비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 주요 고객사 상반기 플래그십 판매량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기저 효과 영향으로 낮아진 눈높이에서 추가적인 매출액 감소세는 제한적이다. 웨어러블 기기향 판매량도 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핸드셋 산업 부진이 심화되지 않는 한 IT부문에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다.

[그림 19] 아모텍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아모텍,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자동차 전장 부문 주요 고객사



자료: 아모텍, 한국투자증권

<표 3>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1Q17	2Q17	3Q17	4Q17	1Q18	2Q18	3Q18	4Q18F	2017	2018F
매출액	73.0	95.6	81.8	65.1	87.4	58.5	56.4	55.0	315.4	257.3
전자부품	31.8	31.7	379.0	28.2	28.8	21.9	24.2	-	470.7	-
안테나	31.3	52.8	33.5	28.4	50.1	27.3	21.0	-	146.0	-
모터	4.3	4.8	5.4	5.2	5.9	6.4	9.6	-	19.7	-
기타	5.5	6.3	5.0	3.3	2.6	2.9	1.5	-	20.1	-
영업이익	9.0	12.5	12.2	7.3	8.2	2.7	1.8	1.5	40.9	14.2
영업이익률	12.3	13.0	14.9	11.2	9.4	4.6	3.2	2.8	13.0	5.5

자료: 아모텍, 한국투자증권